'잊어 버리자고 잊어 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본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조병화 시 김성태 곡 '추억'중)

내마음의 노래-광주 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매월 둘째주 금요일 시민들과 어울림 한마당

내달 10일 호신대서 가곡 배우기 등 '4월 무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가 어우러진 한국 가곡은 사람들의 감성을 일깨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음악 시절 가곡을 불렀던 기억만 아련히 남아 있을 뿐 어른이 돼서 가곡을 불러 본 경험은 거의 없다.

교과서 안에만 갇혀 있는 탓에 아름다운 우리말의 '보물창고'인 가곡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까워 '우리 가곡 부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들이 있다.

가곡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뭉친 '내 마음의 노래-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욱 아름다운 피부과 원장·이하 내마노)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호신대에 자리잡은 카페 '티브라운'에 모여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내마노'는 인터넷 가곡 사이트 '내 마음의 노래'(www.krsong.com)를 통해 맺은 인연이 출발점이 됐다. 지난 1996년 개인 홈페이지에서 출발한 '내 마음의 노래'는 회원이 5만명에 이르는 가곡 전문 사이트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박원자(시인·조봉초 교사), 박진영(피부과 원장), 김왕수(이비인후과원장), 이용우(국립광주박물관)씨 등이 주축이 돼 서울·마산·고성에 이어 광주에도 모임을 꾸렸고, 지금까지 7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모임은 8명의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참가자들은 매회 1만원의 회비(차 값 포함)를 내면 된다.

지난 13일 3월 모임이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이날은 광주챔버싱어즈(지휘자 박호진) 등이 찬조출연하는 좀 특별한 무대로 꾸며져 장소를 호신대 예음홀로 옮겨 행사를 진행중이었다.

6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40~60대. 학창 시절 음악시간에 '가곡'을 부르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봄이 오면', '동무 생각', '나물 캐는 처녀', '청산에 살리라' 등 귀에 친숙한 노래를 정성들여 한곡 한곡 부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성악가 최석부씨와 함께 신작 가곡을 배우는 시간. 임승천씨의 시에 박영규씨가 가락을 부친 '그리운 사람아'는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열심히 배워 멋지게 불렀다.

가곡과 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매회 시인 등 문학인들을 초청하고, 작곡가들도 초빙한다. 지금까지 전원범, 김승일씨 등이 다녀갔고, 이날은 시인 손광은씨가 참가해 자작시 '그림자의 빛깔'을 낭송했다.

'내마노'에서는 주로 합창을 하지만 회원들이 무대에 직접 나가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가요는 노래방이나 모임 같은 곳에서 쉽게 부를 수 있지만 가곡을 부를 기회는 흔치 않다. 그래서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한달에 한번씩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하다.

독창을 하기도 하고, 몇몇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꼭 음악회의 주인공이 된듯한 기분이 든다. 열혈 참가자들은 전문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는 등 가곡 부르기에 푹 빠져 있다.

노래 지도를 맡고 있는 최석부씨는 "주로 외국 가곡을 불렀기 때문에 나부터도 가르칠 준비를 하며 신작가곡을 많이 배우고 있다"며 "한국 가곡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모임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호신대 카페 '티 브라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한송이 흰 백합화' '남촌' 등을 함께 부르고 작곡가 황덕식씨와 소프라노 이환희씨도 초청한다. 문의 062-575-5999. cafe.daum.net/gjkrson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웅·감방·단담쌉럭·종인셩…

亞 전통악기 직접 체험하세요

내달 1일부터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전시

사웅(미얀마), 감방(인도네시아), 단담쌉럭(베트남) 종인셩(싱가포르) 등 이름조차 생소한 다양한 아시아의 전통악기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내달 1일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 달간 '아시아의 전통악기 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의 악기와 전통의상이 전시되며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전통 음악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사진〉

전시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악기제작체험교실'에서는 카주(피리모양의 아프리카 전통악기), 흙피리 등의 악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악기의 원리를 학습하고 직접 제작한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연주를 들려주는 작은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www.cct.go.kr)에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30-0185,01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심으로 보는 현대인의 고독

최재영씨 내달 7일까지 서울 초대전

'머리 큰 아이' 시리즈로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재영씨가 오는 4월7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김재선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또 다른 세계'를 주제로 인형의 얼굴처럼 무표정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신작을 발표한다. 무표정한 얼굴은 감정의 변화가 없는 모호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현대인의 욕망, 상실, 실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핑크 계열의 색채로 화사한 느낌을 주며, 돌이킬 수 없는 유년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되살려 준다.

그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슬레이드 예술대학과 윔블던 예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얼굴, 몸 등 인체에 관한 작업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감정을 표현한 그림을 주로 그렸다. 지난 2001년 귀국한 뒤 광주, 서울, 런던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어 화사한 색과 잔잔한 울림이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2-3444-5437.

'monologu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N피아노 열 한번째 연주회

오늘 전남대·내달 2일 순천문예회관

C.N피아노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광주와 순천에서 열린다. 30일·31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4월 2일 오후 7시 순천문예회관 소극장.

지난 2004년 발족한 C.N피아노는 전남대 출신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지금까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메시앙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아멘의 환상' 전곡 연주회 등 다양한 주제로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브람스, 거쉬인, 바르톡의 발라드와 랩소디를 들려준다.

출연자는 모현주·오자형·성명옥·이인미·위은정·박수영·황미경·유정아씨 등이며 정은순·한정숙·김선자·박행숙씨가 리스트의 '두 대의 피아노의 여덟개의 손가락을 위한 헝가리 광시곡 2번'을 선사한다.

12회 연주회는 다섯 대의 피아노 앙상블 페스티벌로 꾸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